혼을담는공간

김혜식
수필가

거리를 거닐 때마다 주변의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상념에잠길때가종종있다. 초현대식으로지어진건축물 안에선오늘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있을까. 그곳이야말로온갖인간사의발원지가아닐까하는엉뚱한생각을하는게그것이다.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담고있는 공간이어서 그효용 가치가 매우 높다. 걸출한 인물들의탄생지인 생가만 해도그렇다. 그곳이 어느 인물이 출생하여삶을 살아온 집만은아닐 것이다. 그들의 혼과 체취가 집안구석구석한껏서려있으므로더욱뜻깊은건축물이라할수 있다.

지난날필자의삶의편린들이구석구석깃든건축물을지척에두고있다. 열세평짜리서민아파트가그곳이다. 삼십대후반에서부터 사십대전반까지살았던집이다. 가끔마음이울적할때마다그곳을 즐겨찾는다. 지은지 20년이훌쩍넘은낡은아파트이지만언제가 봐도그곳이정겹게만느껴진다.

그곳을 들르노라면' 까르르 까르르 '마치 은방울을 흔드는 듯한 어린딸아이들의 해맑은웃음소리가귓전에들려오는 듯하다. 갓난 아기때의막내딸울음소리도그곳에서들려오는것같다. 해마다봄이오면베란다에서장을담그던삼십대의젊디젊은내모습도그곳에서어른거린다.

필자는그집에서늦둥이막내딸의태를갈랐었다. 비좁은공간이었지만그아파트에서아이들의잔뼈가굵었다. 더나은미래를향한 꿈을한껏키우기도했었다. 생활비를한푼두푼아껴좀더넓은평수의아파트로 이사할희망에부풀었었다. 무엇보다필자는남다른 희망을한겹더두르고살았다. 그것은문학에심취하는일이었다. 젖먹이 막내를 등에 업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글을 썼었다. 그땐 오로지내면의소리에귀기울이기위해글을썼었다.

여러해를 살아오는동안 넓은평수의 아파트로하나둘 이웃들이이사를할때마다그들의이웃이되고싶었다. 이젠그때보다더 넓고시설좋은아파트에살고있다. 그럼에도가슴한구석엔예전보다더강한영욕의바람이시시때때로부는것은어인일일까? 욕망보따리는날이갈수록배가불러가는데도가슴은왠지점점더가난해져허허롭다.

사실작은평수의아파트에살때친구들앞에서주눅이들기도 했었다. 어찌된영문인지친구들은벌써사십대초반에거의넓은평수의아파트에살고있었다. 그들에비해필자는절반도안되는평수의아파트에살고있다는 게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들마저학교에서조차근처넓은평수아파트에사는아이들과 편이갈라졌었다. 부모노릇을제대로못하는것같아못내가슴이아팠다. 그럼에도인생의중반을 작은 공간 속에 파묻고 오로지 남부럽잖은 삶을 꿈꾸며 살았었다. 그땐어떤역경이든헤쳐나갈수있다는의지도강했다. 남편의사업실패에도결코무릎을꺾지않았다.

요즘은날이 갈수록 점점내 자신이나약해지는 것 같다. 사소한 슬픔도견뎌내지못하고걸핏하면눈물을쏟기도한다. 이제껏인생의 참뜻을 깨우치지 못한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손안에 쥐고 싶은 욕망이남아있다는반증일까. 지난삶을되돌아볼때마다지난날작은평수의아파트에서의삶이오히려필자에겐낙원이었던것같다.

생의참행복은물질의많고적음이아닐진대그동안너무허울에 연연해온듯싶다. 어찌보면겉치레에불과할많은물질을지녔다고 자만할일이아니다. 그것들을미처 소유하지못했다고안타까워할 일도아니다.

나이들어가장부러워할일은사람다운면모를갖추는일인듯싶다. 그래서몹시부끄러워해야할것은물질의가난이아니라성숙하지못한내면인것같다.

동네구석구석마다요즘도신축아파트, 상가들이속속들어서고 있다. 한때는아파트나상가들이복부인들의 요술방망이로둔갑하기도했었다. 아무리물질만능의세태에살고있지만인간의영혼을 담는건축물들을한낱욕망의도구로이용해서야될법인가. 그런건축물들이 오로지 인간의 안락한 삶을 창출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하루빨리자리매김하였으면한다. 그러기위해선건축물이인간의 헛된욕망을담는그릇이아닌진정으로인간의삶에유용한쓰임을 주는훌륭한 도구로서 그몫을 제대로할 수 있도록건축물에 대한 애정과올바른인식이절실히필요하다.